

영어 진행형의 의미에 대한 인지적 분석

정혜진 · 이나승*

(서울과학기술대학교)

Chung, Hyejin & Lee, Naseung. 2011. A Cognitive Analysis of the Meanings of the English Progressive Construction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9(2). 237-25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English progressive construc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cognitive grammar. Many attempts have been made to account for English progressive constructions, but to our knowledge it is hard to define the meanings of them. In this paper the researchers attempt to analyze English progressive constructions in terms of agentivity and movability. Movability is a new term that the researchers propose to account for the cognitive meanings of English progressive constructions. What we claim is that English progressive constructions can be explained more extensively through a cognitive term 'movability'.

Key Words: movability, agentivity, English progressive constructions, cognitive grammar, spatial domain, temporal domain, abstract domain

1. 서론

영어 진행형의 의미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Jespersen, 1933; Palmer, 1987; Langacker, 1991b, 등)에 의해 논의된 바가 있다. 그러나 영어 진행형의 의미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것은 진행형이 나타내는 의미의 범주가 매우 넓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인지문법(Langacker, 1987, 1991a, 1991b)의 관점에서 영어 진행형이 나타내는 의미를 행위자성과 이동성의 개념과 연관시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¹⁾ 이처럼 진행형의 의미를 분석하는데 있어 행위자성과 이동성의 개념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 정혜진: 제1 저자, 이나승: 교신 저자

1) 본 논문은 인지문법에서 소개하는 개념들 중 trajector/landmark, perspective, perfective verb/imperfective verb, spatial/temporal/abstract domain 등을 주로 연관시켜 의미를 분석하였다.

까지의 분석들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이동성’ 개념을 통한 새로운 분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인지문법(Cognitive Grammar)은 이 논문의 이론의 틀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표현의 구성요소들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인지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을 시간적, 은유적 환경에 적용시킴으로써 의미의 확장을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인지문법은 언어의 인지를 영상으로 처리함으로써 미묘한 뜻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관련된 예문들에 대해 영상 이미지로 나타내어 설명을 돕고자 한다.

인지문법에서는 문법을 비생성적이며 비구성적인 관습적 단위의 목록으로 본다. 즉 화자가 지닌 언어 지식은 순차적이고 이러한 지식을 나타내는 내면화된 지식은 관습적인 언어 단위가 구조를 이루어 생겨난 목록인 것이다. 따라서 은유와 의미 확장의 경우 화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언어 관습을 이해하고 의사 소통과 관련된 모든 지식을 동원하게 된다. 인지문법에서의 문법 부류는 윤곽의 성질에 따라 기본 범주를 분류한다. 다시 말해 어떤 영역 내의 한 지역을 나타내는 물체(thing), 물체와 관계를 포괄하는 개체(entity), 그리고 물체와 대조되는 것으로서 관계(relation)가 있다. 관계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개입 여부에 따라 단순 또는 복합 비시간적 관계(simple/ complex atemporal relation)와 과정(process)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명사는 물체로 분류되고 동사는 과정으로, 전치사는 단순 비시간적 관계로, 형용사나 부사는 단순 혹은 복합 비시간적 관계로 구분된다. Langacker (1991b: 23)는 인지문법에서의 문법 부류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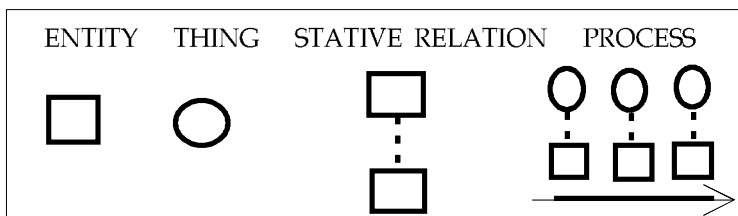


그림 1. 인지문법에서 영상화 과정에서 나타내는 기본 도식들

2. 선행연구

영어 진행형이 행위자성과 의미상 연관이 있다는 것은 Palmer(1987)와 Kearns(2000) 등에 의해 언급된 적이 있으나 이와 관련된 분석은 많지 않다. 지금까지 분석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Palmer는 사람이 느끼는 감각과 관련된 동사들이 진행형으로 쓰이는 것이 가능하고 이렇게 진행형으로 쓰이게 되면 감각을 느끼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미상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그가 제시하는 다음 예들을 보자.

- (1) a. I smell flowers.
b. I taste salt in the soup.
- (2) a. I'm smelling the flowers.
b. I'm tasting the soup.

Kearns도 Palmer와 유사한 설명을 하고 있다. 즉, Palmer가 제시하는 감각동사들이 진행형으로 실현되는 경우 의미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진행형으로 실현되는 경우 활동 동사로 의미의 전환이 일어나 행위자성이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내용들 외에도 Palmer와 Kearns는 가령 앞으로 논의할 예문 (3b)와 (3c)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상태 동사들이 진행형으로 실현되는 경우들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설명은 이러한 경우들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번에는 진행형의 의미를 어휘상의 전환으로 보는 김진석(2001)의 분석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김진석(2001)의 논문은 상태 동사가 진행형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의미상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상태 동사가 '활동 동사'로 어휘상이 전환되었다는 관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제시하는 예문 (3)을 살펴보자.

- (3) a. I'm smelling the perfume.
b. I'm forgetting names these days.
c. Peter is resembling his father more and more.

그는 예문 (3b)와 (3c)에서 동사가 수동적 인지에서 능동적 인지로 어휘상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이를 예문 (3a)와 같은 경우로 보고 있지만 이 경우는 의미상 어휘상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먼저 (3b)를 보면, 'forget'이라는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로 볼 때 사람이 어떠한 지식이나 정보를 잃어버리는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기거나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에 의해 생길 수 있는 것이지 이를 주어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활동상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경우에 진행형으로의 실현이 가능한 이유는 these days라는 한정된 시간 영역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3c)에서도 동사

‘resemble’이 나타내는 의미의 특성상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지 주어의 의지대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김진석(2001)이 다룬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는 활동상이라는 어휘상의 전환으로 상태 동사들이 진행형으로 실현되는 경우들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 경우도 Palmer(1987)와 Kearns(2000)에서 알아보았듯이 활동상의 전환으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는 감각동사들에만 적용되는 한계점이 있었다.

3. 분석

앞서 제2장 선행연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듯이 영어 진행형과 행위자성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된 내용은 한정적이지만 실제로 영어 진행형과 행위자성이 나타내는 의미관계는 더 넓다고 생각되므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의미 관계를 인지적 관점에서 알아보는데 있어서 인지문법에서 행위자와 에너지의 흐름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기본 도식을 먼저 간단히 알아보겠다. 그림 2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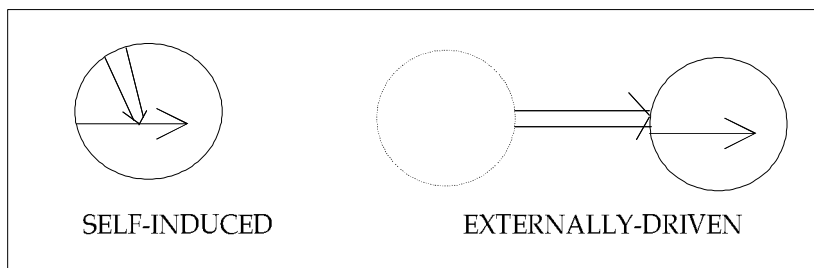


그림 2. 에너지의 흐름

위의 그림 2는 행위자와 에너지의 흐름에 관한 기본 도식이다. 왼쪽에 있는 도식을 보면 이는 행위자가 내부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경우이다. 행위자 안에 있는 위에서 내려오는 화살표는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낸다. 이와 비교하여 이번에는 오른쪽 도식을 보자. 이 경우는 행위자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이 아닌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행위자성과 관련하여 인지문법이 제시하는 도식을 간단히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진행형과 행위자성과의 의미관계를 보여주는 영상을 제시하는 것은 이들의 의미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면 먼저 공간적 영역과 행위자성과의 의미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3.1 공간적 영역과 행위자성

공간적 영역(spatial domain) 안에서 나타나는 영어 진행형과 행위자성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다음 예문을 보자.

- (4) a. Bill is a hero.
b. Mary is serious.

- (5) a. Bill is being a hero.
b. Mary is being serious.

예문 (4)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이다. 이 예문을 진행형으로 전환시킨 예문 (5)를 보자. 예문 (5)는 (4)와는 달리 의미상의 변화가 일어난다. 즉,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행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로 특정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행위자성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 진행형과 행위자성과의 관계는 진행형이 내포하는 결과 관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 어떤 결과에 이르냐에 따라 행위자성과의 관계도 달라진다. 구체적인 예문 (6)을 통해 알아보자.

- (6) a. John won the race.
b. John was winning the race.

결론적으로 위의 두 예문은 같은 결과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진행형으로 쓰인 예문 (6b)에서 John이 반드시 경주를 이겼다는 결론으로만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John은 경주에서 이겼을 수도 있고 또 졌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예문 (6b)를 행위자성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본다면 두 가지 결론이 가능하다. 첫째로 경주에서 이기는 경우 행위자성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만, 경주에서 결론적으로 졌을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이 경우에는 행위자성이 더 약해지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예문 (6b)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결과에 따라 행위자성과의 의미관계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알아본 예문 (6b)와 행위자성과의 관계를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은 경주에서 이기는 경우이므로 행위자 안의 화살표를 굵은 선으로 부각시켜 에너지의 흐름이 강함을 나타내었다. 이와 비교하여 그림 3의 경우는 경주에서 지는 경우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행위자 내부에서 생성되는 에너지가 약해져 화살표가 점점 덜 부각되는 변화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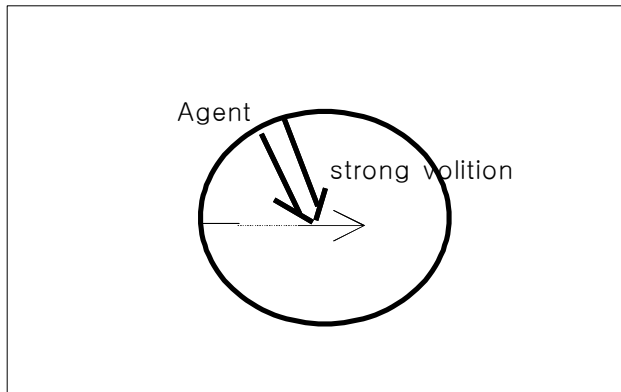


그림 3. 결과관계에 따른 행위자성-이기는 경우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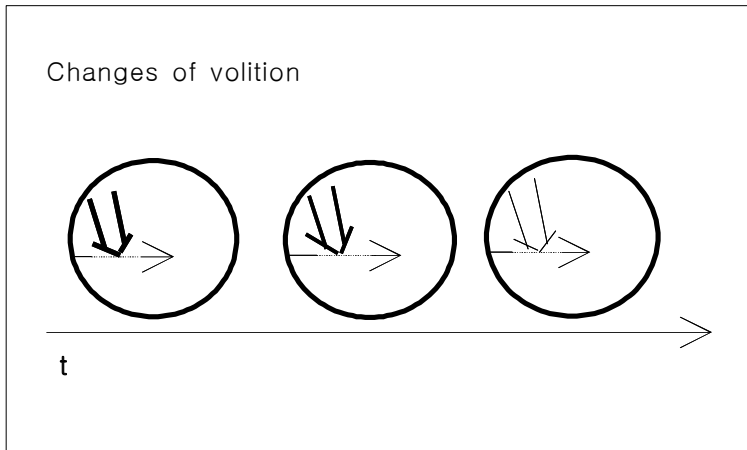


그림 4. 결과관계에 따른 행위자성-지는 경우의 모습

3.2 시간적 영역과 행위자성

시간적 영역(temporal domain) 안에서의 진행형은 행위자성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조종사 'will'이 쓰이는 경우와 비교하여 생각해보자. 다음 예문을 보자.

- (7) a. She will leave here tomorrow.
- b. She's leaving here tomorrow.

예문 (7)에서 두 문장 다 실제로 떠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tomorrow라는 시점이지만 행위자성의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즉, 조동사 'will'이 쓰인 예문 (7a)에서는 주어가 이곳을 떠날 계획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므로 행위자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진행형이 쓰인 예문 (7b)의 경우에는 주어인 She가 이곳을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정한 상태가 아니므로 행위자성이 상대적으로 더 약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그림 5를 통해 비교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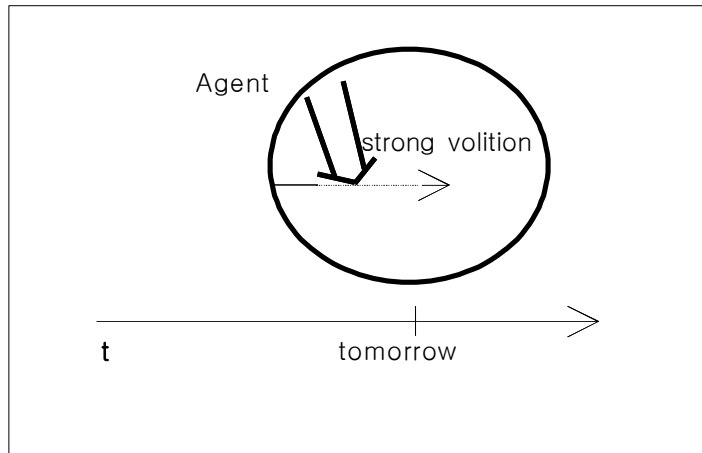


그림 5. 조동사 will과 행위자성과의 관계의 모습

위의 그림 5는 예문 (7a)의 영상으로 문장의 의미상 행위자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림에서 행위자 안에 굵은 화살표로 의지가 분명함을 나타내었다.

그림 6은 예문 (7b)의 영상을 나타낸 것인데,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행위자의 의지가 강한 상태가 아니므로 그림에서도 보듯이 에너지의 발산을 나타내는 화살표가 그림 5에서 보다 덜 부각되는 변화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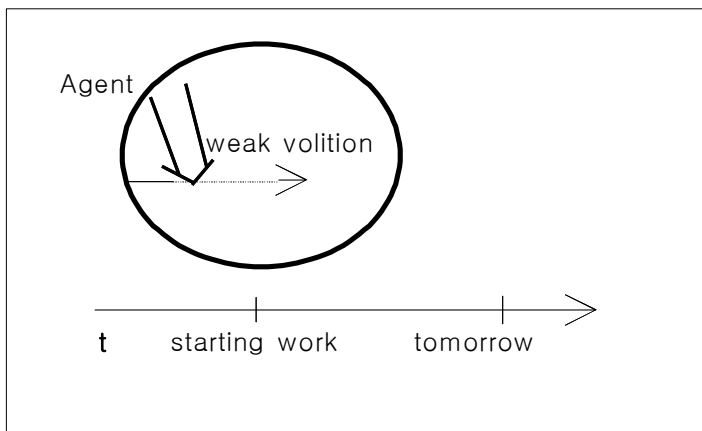


그림 6. 미래시점과 연관된 진행형과 행위자성과의 관계의 모습

3.3 추상적 영역과 행위자성

영어 진행형은 추상적인 영역(abstract domain) 안에서 한정되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 행위자성과 어떠한 의미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자. 예문 (8)은 행위자성이 약하거나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예문들은 상태 동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형으로 실현되는 것이 가능하다.

- (8) a. Dana knows the answers.
b. I understand the problem.

- (9) a. Dana is knowing more and more of the answers as the course processes.
b. I'm understanding the problem more and more the more I think about it.

먼저 (9a)는 주어인 Dana는 수업이 진행될수록 그 문제들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는 뜻인데, 이 경우에는 주어가 그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더 알기 위해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의미로 주어의 정신적인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미이다. 따라서 주어가 의지를 가지고 정신적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추상적인 영역 안에서 행위자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9b)에서도 비슷한 설명이 가능하다. 주어는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주어의 행위자성이 추상적 영역 안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문 (8)과 (9)에서 나타나는 의미상 차이점을 행위자성의 관점에서 비교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그림 7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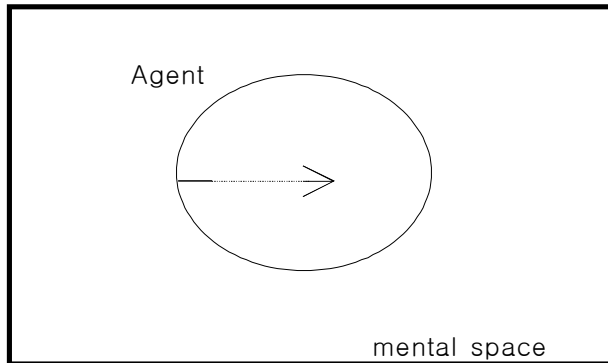


그림 7. 추상적 영역 안에서 수동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행위자의 모습

그림 7과 그림 8은 앞에서 본 예문 (8)과 (9)가 추상적 영역 안에서 어떻게 묘사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그림 7은 예문 (8)을 영상화한 것으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의미상 탄도체가 어떤 사실이나 개념 등을 알고 이해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능동적인 활동의 의미는 아니다.²⁾ 따라서 그림을 보면 원으로 나타난 행위자 내부에서 에너지의 흐름은 나타나지 않는다. 수동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의미이므로 행위자를 굵은 선으로 강조하지 않고 행위자가 속해있는 영역을 굵은 선으로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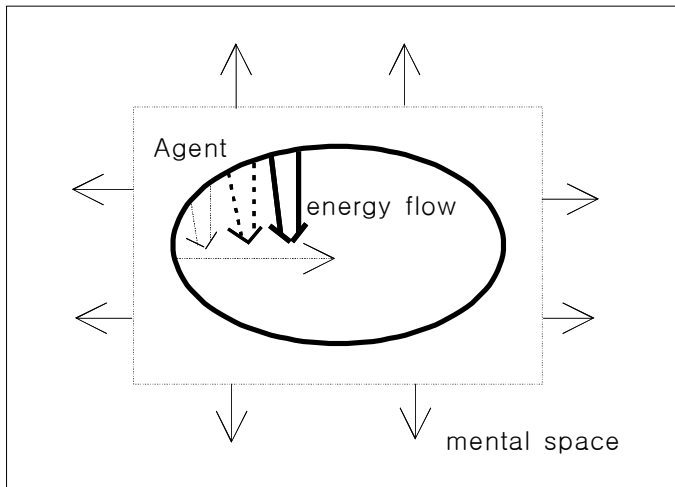


그림 8. 추상적 영역 안에서 행위자의 정신적 활동의 모습

2) 주어가 능동적으로 하는 활동의 의미가 아니고 어떤 상태에 있는 수동적인 의미이므로 수동적인 영역을 부각시켜 나타내었다.

이제 그림 8을 보자. 이 그림은 예문 (9)를 영상화한 것인데, 추상적 영역 안에서 어떤 개념이나 사실을 점점 알게 되고 이해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행위자의 정신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그림 안의 행위자를 보면 행위자 내부에 에너지 흐름이 점점 강해져 행위자의 정신적 활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활발해지는 변화를 알 수 있는데, 이는 에너지의 흐름을 의미하는 화살표가 굵은 선으로 점점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행위자 주변의 영역이 점점 커지는 것은 행위자가 알고 이해하게 되는 범위 또한 점차 커지는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까지 영어 진행형이 추상적 영역 안에서 행위자성과는 어떠한 의미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결국 행위자성이라는 것도 화자가 행위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행위의 중심은 기본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행위자의 의지력이지만, 실제로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눈에 보이는 행위자 이상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 그러므로 필자는 행위자성이 인지영역과 추상적 영역으로 범위가 확장되어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3.4 행위자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행위자성이라는 것은 영어 동사들이 진행형으로 실현되는 데 있어서, 특히 상태 동사나 감각동사들이 진행형으로 실현되는 경우에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자질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자성이라는 자질은 같은 의미라고 보이는 진행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같은 의미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동사들도 진행형으로 실현될 때 행위자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미루어보아 행위자성이라는 자질로 영어 진행형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예들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는지를 행위자성과의 의미관계를 중심으로 알아보자.

- (10) a. He is a hero.
b. She is serious.

3) 이러한 개념은 Langacker(1991:189-201)가 제시하는 'active zone'의 개념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active zone'은 행위의 과정에 실제로 참여하는 참여자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다음 예를 보자.

(i) Roger heard a noise.

예문 (i)에서 소리를 듣는 실제 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주어인 Roger의 귀와 신경체계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active zone'의 개념과 연관시켜 행위자성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본다면 진행형과 행위자성과의 의미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 (11) a. He is being a hero.
b. She is being a serious.

위에서 제시한 예문 (10)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장이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탄도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심리 상태를 나타내어 제3자로부터 평가를 받거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경우 예문 (11)에서처럼 진행형으로 전환이 되면 탄도체가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전환에 행위자성이 영향을 미친다. 예문 (10)이 예문 (11)에서처럼 진행형으로 전환되면서 탄도체가 특정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바뀌었다. 이 때 예문 (11a)와 (11b)의 각각의 탄도체인 He와 She는 능동적 행위의 주체이므로 행위자성을 갖는다.

그러나 예문 (10)과 똑같은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라 하더라도 진행형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다음 예문 (12)를 위의 예문 (10)과 비교하여 생각해보자.

- (12) a. John is tall.
b. John is bald.
- (13) a. *John is being tall.
b. *John is being bald.

예문 (13)의 비문법성이 보여주듯 tall이나 bald는 진행형으로 쓰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진행형으로 쓰인 문장이 의미상 탄도체가 능동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사하게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어떤 경우에는 행위자성과 의미상 연관이 된 진행형으로 전환이 되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진행형으로 쓸 수 없는 것일까? 적어도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진행형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 가능성 여부가 행위자성이라는 의미 자질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유사한 경우의 상태 동사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성과의 의미관계가 다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진행형으로 실현되는 것이 가능한 상태 동사이긴 하지만 행위자성과의 의미관계는 나타나지 않는 예들을 살펴보자.

- (14) a. I am understanding the problem more and more the more I think
about it.
b. He is resembling his father these days.

예문 (14a)는 (9b)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어 I의 정신적인 활동이 일어나 행위자성이 나타

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문 (14b)를 살펴보면, 주어인 He가 요즘 아버지를 점점 닮아간다는 의미로 추상적 영역 안에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의미라는 점에서는 예문 (14a)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인 것처럼 보이지만 He가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의미는 아니므로 추상적인 영역 안에서 행위자성이 나타나는 의미는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진행형과 행위자성과의 의미관계에도 한계점은 분명히 있었다. 특히 상태를 의미하는 동사들의 경우 유사한 경우로 보이지만 같은 의미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예들이 있다. 행위자성이 진행형과 의미상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유사한 의미에 속하는 모든 진행형 문장들을 다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설명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이동성의 관점에서 본 영어 진행형

지금까지 논의해온 진행형 문장들을 이동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재검토하고 이 개념이 진행형으로 실현되는지 가능성 여부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자. 다음 예를 보자.

- (15) a. The socks are lying under the bed.
 b. Mr. Smith is standing by the Nile.
 c. I'm living in Armherst.
 d. I'm thinking that he is right.
 e. Something is wrong with my eyes. I'm seeing double.

위의 예문 (15)가 진행형으로 실현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를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예문 (15)는 특정 상황에 놓이기 이전 상태에서 특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새로운 상태, 그리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암시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예문 (15a)를 보면 주어인 The socks가 일시적으로 침대 위에 놓여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예문 (15b)는 Mr. Smith가 나일강변에 현재 서있는 상태, 예문 (15c)도 마찬가지로 주어인 I가 임시로 Armherst에 거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문 (15d)는 특정한 상황에서 그가 옳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이고, 마지막 예문 (15e)에서도 일시적으로 눈에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예문 (15)를 통해 알아보았듯이, 이러한 경우의 진행형은 모두 일시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미를 필자는 다음과 같은 그림 9로 나타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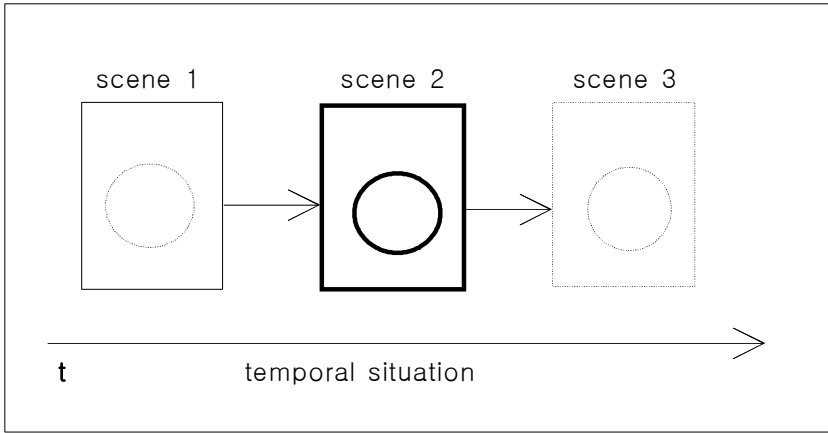


그림 9.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진행형의 이동 모습

그림 9를 살펴보면, 먼저 ‘scene 1’에서 나타난 어떤 개체의 상태가 ‘scene 2’에서는 다른 상태로 이동을 하였고, 마지막 ‘scene 3’에서는 다시 처음 장면에서의 원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Scene 1에서 장면 안에 있는 원은 행위자인데 이전에 있던 상태이므로 굵은 선으로 부각되지는 않았다. 다음 장면인 scene 2는 굵은 선으로 부각된 모습인데 이는 현재 어떤 특정한 장소에 위치해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scene 3을 보면, 문장의 의미상 행위자가 다시 원래의 상태나 위치로 돌아갈 것임이 암시되어있으나 암시된 의미이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므로 점선으로 나타내었다.

지금까지 그림 9를 통해 알아본 의미와 관련하여 진행형이 나타내는 새로운 의미 자질을 설정하려고 한다. 이 예문에서의 진행형은 ‘scene 1’에서 ‘scene 2’로, 또 마지막 ‘scene 3’으로 각각의 장면에 나타난 행위자의 상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개념화되므로 이동성이라는 동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와 관련하여 일시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진행형에 [+이동성]이라는 의미 자질을 설정한다면 앞에서 본 예문 (15)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진행형으로 실현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를 잘 설명해줄 수 있다고 본다.

이번에는 예문 (10b)처럼 상태의 변화가 있다고 보이는 다른 예들이 진행형으로 실현된 경우를 살펴보자. 다음 예문을 보자.

- (16) a. John was reaching the top.
- b. He was dying.
- c. He is resembling his father more and more.
- d. I’m forgetting my French.
- e. We are all becoming older.

예문 (16a)에서 John은 정상에 오르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로 정상을 향해 가는 과정 안에서 목표지점을 향해 점점 다가가는 상태의 변화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 (16b) 또한 마찬가지로 He가 죽음이라는 결과적 상태에 이르기 전의 죽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서 상태가 변화하는 의미가 나타난다. 예문 (16c)를 보면, 주어인 He가 점점 더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성격이나 외모를 닮는다고 볼 때 He의 내적이나 외적인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 예문 (16d)는 불어를 점점 잊어버리는 변화를 의미하고, 마지막 예문 (16e)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문 (16)은 공통적으로 주어가 진행형으로 쓰인 문장 안에서 상태의 변화를 겪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와 관련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그림 9를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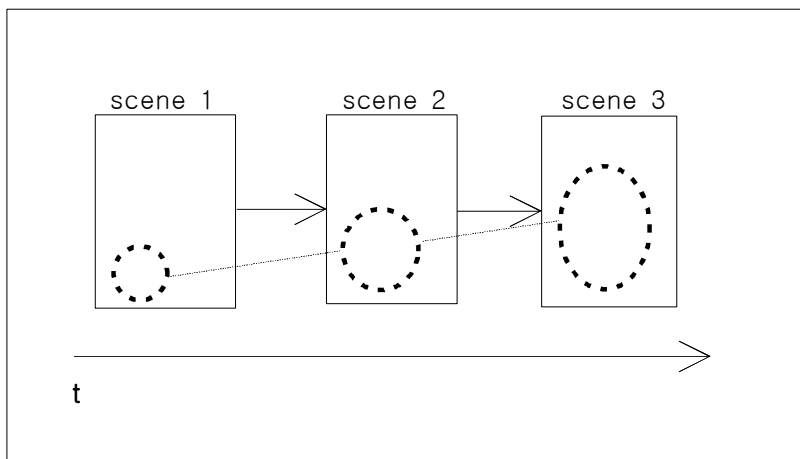


그림 10.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진행형의 이동 모습

그림 10을 보면, 각 장면 안에 나타난 것은 주어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태의 변화이다. 이러한 상태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개체가 아니므로 점선으로 나타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를 겪으므로 장면마다 변화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scene 1’에서 ‘scene 2’로, 또 다시 연속되는 장면들로 각기 변한 상태가 장면마다 이동을 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상태가 변화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진행형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동을 하므로 동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진행형에 [+이동성]이라는 새로운 의미 자질을 설정하여 이동성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 예문 (10a)와 (10b)의 의미 차이와 예문 (16)이 진행형으로 쓰이는 것이 가능한 이유를 잘 설명해줄 수 있다.

지금까지 영어 진행형이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 이와 관련하여 행위자성의

관점에서 보다 더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의미 자질인 [+이동성]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진행형으로 실현이 가능한 경우는 일시적인 상황과 내적인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경우인데, 진행형이 나타내는 이 두 가지의 의미들은 공통적으로 상태가 이동을 하는 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와 관련하여 [+이동성]이라는 의미자질을 설정한다면 진행형으로 실현가능한 문장들을 좀 더 분명한 의미의 기준으로 잘 설명해줄 수 있다.

5. 결론

영어 진행형이 나타내는 의미는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왔다. 그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영어 진행형의 의미를 제시하였는데, 각각의 의미들은 영어 진행형을 잘 설명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인지문법의 관점에서 영어 진행형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행위자성과 이동성의 개념과 연관시켜 살펴보았다. 먼저 선행연구에서는 영어 진행형과 행위자성과의 의미 관계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분석들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나타내는 의미 관계를 인지문법의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하였다. 인지문법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영어 진행형과 행위자성과의 의미 관계는 공간적, 시간적, 그리고 추상적 영역에까지 확장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을 통해 영어 진행형과 행위자성과의 의미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나타나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영어 진행형이 나타내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설명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필자는 '이동성'이라는 새로운 의미자질을 제시하려고 한다. 영어 진행형이 나타내는 의미를 '이동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면 좀 더 포괄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진석. (2001). 영어 진행형의 제약과 의미. *새한영어영문학*, 43(1), 235-257.
- Comrie, Bernard. (1976). *Aspect: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Verbal Aspect and Related Probl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espersen, Otto. (1933).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Kearns, Kate. (2000). *Semantics*. London: Macmillan Press Ltd.

Langacker, Ronald.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I,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_____. (1991a).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II, Descriptive Applic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_____. (1991b). *Concept, Image and Symbol: The Cognitive Basis of Grammar*. Berlin: Mouton de Gruyter.

Palmer, Frank R. (1987). *The English Verb*. New York: Longman.

정혜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39-743 서울시 노원구 공릉길 138(공릉2동 172번지)

인문사회대학 영어과

전화: (02)970-6248

이메일: hjchung@seoultech.ac.kr

이나승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39-743 서울시 노원구 공릉길 138(공릉2동 172번지)

인문사회대학 영어과

전화: (02)970-6269

이메일: ns0905@gmail.com

Received on 7 April, 2011

Revised on 5 June, 2011

Accepted on 5 June, 2011